





전도일꾼 훈련을 위한

# 웨슬리 전도 가이드북

## Contents

- 2 | 발간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강승진 감독
- 4 예비된 영혼 조재진 목사
- 13 왜 전도 해야 합니까? 이영태 목사
- 25 전도 중 거절 처리법 이상일 목사
- 33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 이현식 목사
- 46 전도의 실제 오숙녀 전도사
- 55 웨슬리 전도학교 전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사용법
- 61 영적 전쟁과 담력 강화 손철산 목사
- 70 전도자의 예절 박정희 권사
- 78 교회 중보기도사역과 전도일꾼 세우기 유재구 목사
- 90 영월 성은교회 전도 이야기 이상주 목사
- 102 교회학교 부흥을 교회 부흥으로 연결시켜라 강득환 목사
- 109 효과적인 새신자 정착 사역 홍준기 목사
- 122 부록 2017년 전도왕 노하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강승진 감독  
선교국위원장

최근 10년간 감리교회는 많은 수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전도의 열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식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요 20:31).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준비가 없고,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터 갖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담대해야 하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인내가 부족하여 화도 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전도는 바로 그 빛을 갚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바로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교국과 웨슬리전도학교에서 좋은 전도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전도에 헌신하신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좋은 글을 집필하여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전도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쓴 깊은 내용이 있는 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전도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며 열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 모든 교회가 전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들이 부흥되고 살아 역사하는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이 함께 할 것이며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 예비된 영혼

(행13:48)

조재진 목사 | 웨슬리전도학교 이사장, 산곡교회

전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찾아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중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요6:65) 누구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된 영혼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 오래전 청량리역 광장에서 노방찬양전도를 했을 때의 경험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중의 하나가 바로 “예비된 영혼” 혹은 “준비

된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이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 ‘예비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나왔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 대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작정되었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전도자는 이 말을 ‘예비된 영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 예비된 영혼을 근거로 한 전도방법: 고구마 전도법
- 예비된 영혼을 전도한 구체적인 한 가지 예: 공부방 선생님을 전도한 이야기

첫 번째 주제: “예비된 영혼”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예비된 영혼

을 찾는 것'이라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나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을 잘하거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 설득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잘 찾아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전도의 현장 어디에 예비된 영혼들이 숨어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비된 영혼'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를 사람으로 채우려는 욕심으로 가득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나, 큰 교회에 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현장에 나온 사람의 눈에는 예비된 영혼이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비된 영혼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 첫 번째 방법: 예수님께서 찾아낸 예비된 영혼

요한복음4:1-42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냉담하게 대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내면에 감추어진 많은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이 마음을 열도록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전도현장에서 당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방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예수님처럼 냉담한 반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행16:1-10, 18:9-10)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여인과 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4: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내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건드린 것입니다. 개인 전도에 있어서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여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 말하자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이 여인은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깊은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18절) 결국 이 여인과의 대화가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예배에 대한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물’과 ‘목 마르다’라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예배’와 ‘메시야 대망’이라는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마음을 여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방법: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

사도행전8:26-39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빌립은 성령의 지시로 마차 가까이 갔고,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빌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비된 영혼인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심중을 파악하는 질문입니다.

심중을 파악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제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 무슨 기도제목이 있습니까?
-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부담을 주셨습니까?

제임스 엥겔스라는 전도학자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이클(cycle)이 있는데,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영적인 갈급함도 없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는 책이나 영화를 통해 자기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분의 마음이 열린 상태, 곧 예비된 영혼이 된 상태입니다. 그 시간에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이분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된 영혼”이라는 말에서 속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도를 잘하려면 점쟁이처럼 ‘아 저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구나’라고 딱 알아맞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시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예비된 영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인상이나 외모는 예비된 영혼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처음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구나’라는 것을 혹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주제: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두 가지 힌트

이제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중요한 두 가지 힌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힌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고, 누구에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보면,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전도현장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 즉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표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삭개오의 이야기)

두 번째 힌트는, 한 지역에서 여러 번, 혹은 오랫동안 전도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좀 더 설명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을 두고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을 여는 대화를 시도해 보면, 예전과는 달리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예비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어느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일 년, 이 년, 계속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란 예비된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곧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인지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 - 병원전도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시면서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1. 먼저 전도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역 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관계 전도를 한다면 관계를 맺을 때,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2. 그 후에 그 전도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주목해서 보십시오. 방해하는 사람, 말을 거는 사람,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3. 혹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여는 대화나 심중을 파악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인지를 알아보십시오. 특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 보면 그 사람이 예비된 영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4.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전도현장에 먼저 와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과 그 시간에 맞추어 예비된 영혼

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 왜 전도 해야 합니까?

(행 20:20-21)



이영태 목사 | 성현교회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고 고백합니다. 전도를 자기 생각과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위함이라" (눅19:10) 전도자는 주님을 본받아 잃어버린 영혼(Lost souls)들을 애타게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백마리의 양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아 헤매시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며 열 드라크마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애타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으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애타는 심령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구령의 심령인 것입니다.

## 1. 왜 전도해야 하는가?

### 1)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잃었던 이들은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바로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구 개구리 소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개구리를 잡으려간 아이들을 찾으려고 온 나라가 소동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수년동안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찾아 헤매였고 모든 메스컴은 연일 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주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애타하며 마음 졸였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함께 찾아주지 못해도 함께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기뻐하십니다.

### 2)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아직도 믿지 않지만 믿어야 할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밖에 있던 불신자를 안에 있는 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교회는 부흥됩니다.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커 가는 교회와 작아지는 교회로 구분됩니다. 지금은 작지만 커갈 수도 있고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가 더욱 클 수도 있고 점차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회가 점점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며 부흥되는 교회에는 신바람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교회에는 활력이 생기며 문제가 사라집니다.

### 3)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의 소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즉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을 하나님 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며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던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며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며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며 예수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 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 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도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 4) 전도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 내시지 않고 가문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 르심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문이 바뀌고 민족에 예수의 복음 이 들어가면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 의 진정한 발전은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일 것만이 아니라 그 문명의 근본 이 되는 복음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 5) 전도는 예수믿는 이유이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 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분의 뜻을 따

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부터 “사람을 낸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된 성도들입니다. 전도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들의 전도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는 열매맺고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 6)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부르신 3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막 3: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딤후 4:5)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해야할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힘쓰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스펄전은 먼 훗날 나의 전도로 천국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구원을 위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전할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 2. 전도대상자를 선정하라

### 1) 예비된 자(전도대상자)를 찾는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마 10: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복음을 전할때에 합당한자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 무르익은 열매, 추수때가 된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 남의 집 문을 두드릴때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혹시 욕을 먹지 않을까?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펍박도 받고 욕도 먹을때도 있지만 주님이 예비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직접 전도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은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군이 부족할 뿐입니다.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구원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살려놓은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지 한 장 길에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맡겨주신 일에 오직 충성할 뿐이며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 2)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실을 하여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였는데 결실하지 못하면 실패라

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농사로 예를 든다면, 추수를 하여야 성공일까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며칠간 밭을 갈고 돌아올 때 추수를 하지 못하였다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고 돌아올 때 단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해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밭 갈고 씨 뿌리는 것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한 순간에 하려는 마음이 곧 욕심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항상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충성을 감당할 때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모든 과정이 성공입니다. 추수의 순간이 성공이 아니고 물을 주는 것도 성공이고, 김을 메는 것도 성공이고, 추수하는 것도 성공입니다. 전도는 언제나 성공이라는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며 때로는 내가 씨뿌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았으나 거두는 기쁨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 3. 전도자의 자세와 무장

#### 1) 전도자는 영혼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이 관심을 갖는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 보입니다. 서점에 함께 가도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코너로 가서 책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사방에 전도할 사람이 보이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나

에게 전도 대상자가 안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나에게 주님이 가지신 구령의 열정,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관심사입니다.

### 2) 전도자는 미련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미련스러울 정도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농사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건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미련할 정도로 힘을 다하여 전할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 3) 전도자는 영적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도자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능은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도망을 갑니다. 경찰관을 보면 그들에게 육체의 힘은 없으나 권세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차를 세우지는 못하지만 권세로 어떠한 차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이 아는 진정한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전도의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니 영적인 권세가 필요합니다. 상

대방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겁 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악한 것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4) 전도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게 되며 행동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전도의 결실을 맺으려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전도를 잘 하는 사람을 부러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이는 잘 할 수 없습니다. 소원이 없으므로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작은 가게를 하여도 돈을 벌게 됩니다. 땅을 모으려는 소원이 있으면 땅을 모으게 되고,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소원, 바울이 가졌던 소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는 전도의 소원을 가진다면 전도가 가능해 집니다. 원하는 소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 4. 어떻게 전도하여야 하는가?

#### 1) 자신이 하려고 말라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는 “저는 내성적이라…” “성경을 잘 몰라서…” “교회 다닌지 얼마 안돼서…” 등 변명은 모두 ‘전도를 자신이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도구가 될 뿐 그 과정은 100%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이를 깨달으면 담대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 2)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전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고 싶은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 3) 자주 만나야 합니다.

전도에 있어 자주 대면하는 것만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출근시간마다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는 말했으며, 다른 의사보다 회진을 몇 배 더 많이 돌면서까지 환자들을 자주 보고 복음을 전한 ‘의사 전도왕’ 이병욱 교수 등이 그 예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익힐수록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예수회의 창시자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천번의 고생도 마다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 4) 칭찬으로 시작하십시오.

마 10: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사람들은 칭찬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한결 짚어 보이십니다.” “이 식당 물맛이 끝내줍니다.” 등 칭찬으로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김기동 집사는 “칭찬은 젓가락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흉을 보면서 겉으로만 칭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칭찬거리를 찾다보면 결국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진심으로 전도하려는 열의도 생기게 됩니다.

### 5) 겸손해야 합니다.

“전도한다는 사람이 뭐 그렇게 거만해? 맨날 자기 잘사는 얘기만 하고….” 전도를 하다보면 비난을 듣기가 다반사이지만 성경에서 이미 복음 전도의 길이 고난임을 배운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줌마 전도 왕’ 김인아 전도사에 따르면 교만한 상대에게는 자세를 더 낮추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번은 아이 때문에 교회갈 시간이 없다는 사람을 위해 “아이를 봐주겠다”고 나섰다가 돈 받고 부리는 보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김 전도사는 신경쓰지 않았고 ‘그 일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철옹성같은 마음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6) 전도대상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막무가내식 돌진이 예상 외의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상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한결 효과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전도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일단 예수를 믿을 때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파악한 김인아 전도사는 ‘뜨겁게 믿을 사람’을 위해서는 통성으로 기도해주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꼼꼼하고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등 전략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 7) 혼자하려고 하지말고 상호 협력하십시오.

전도를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십시오. 학생들이나 자녀들 또래는 자녀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부모님 또래이면 부모님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교회안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협조를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전도에 있어 교회와 교인들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한다. 류익태 목사는 “전도자는 교회의 물결을 타야 힘이 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전도의 분위기로 전환 될 때에 전

도가 쉬워집니다. 교회 전체에서 전도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이 느껴져야 전도자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변화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5.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 1)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불같은 전도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행 1:14)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없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 9:29) “기도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부흥이 있기 전에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골 4: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1903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반로버츠가 이끄는 중보기도가 있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선교사 들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없이 전도가 된 일이 없고 큰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2) 철저하게 회개하라

능력있는 기도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행 2:38)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하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만으로 안됩니다. 성령이 도와 주셔야 되기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귀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 3) 말씀으로 무장하라

(행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행 4:4) “말씀을 들은 사람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 1:18)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벧전 1:25)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세지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 4)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나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 2:44-4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 교회는 유무 상통 운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교회안에는 구름 때처럼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사탕하나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몰려오고, 헌옷하나 받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빵과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고 나눌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 전도 중 거절 처리법



이상일 목사 | 하늘이음교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바로‘거절’입니다! 그러나 거절은 절대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선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요15: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사람들이 전도를 거절하는 이유

사람들이 전도를 거절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전도를 거절하는 이유가 그 배후에 사탄의 역

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준 바 있습니다.

(고후4:4)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할 동안 사탄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방해하고 거절하게 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영적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지녀온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고수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제의에는 우선 거부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대상자가 거절을 했다고 주저하거나 단념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거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전도를 거절할 때 ‘지금부터 진짜 전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2.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을 분별하라!

우리가 상대방의 거절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거절이 진짜 거절인지 가짜 거절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 가짜 거절의 예:

- 1) 무조건적 거절: 무조건 “안 믿어요” “됐어요”
- 2) 회피용 거절: “생각해 볼께요” “다음에요”
- 3) 농담용 거절: “하나님이 보이면 믿지요”
- 4) 거짓말 거절: “불교 믿어요”

- 진짜 거절의 예:

- 1) 신앙 교리에 대한 의문: “왜 꼭 예수님이나?” “내가 왜 죄인인가?”
- 2) 편견에 의한 거절: “교회다니는 위선적인 아무개 때문에 싫다”

- 3) 주저함에 의한 거절: “나이가 더 들면 믿지요” “성공하면 믿지요”
- 4) 교회와 교인들의 잘못 때문에 의한 거절: “당신들이나 잘 하세요”

### 3. 거절당할 때의 자세

우리가 전도하다가 거절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 1) 먼저 진지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2) 논쟁하지 말고 제의만 해야 합니다.
- 3)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 4) 3F로 반응하십시오!

Feel (기분) - 당신의 기분을 알겠습니다.

Felt (감정) - 저도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Found(발견) -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 5) 인정법을 사용하십시오 - 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 6) 거절을 예방하십시오
  -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신앙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가 있지요?
  - 인생이 너무나 짧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요?
  - 이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요?
- 7)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4. 거절당할 때의 원칙

전도할 때 거절을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십시오!

- 1) 거절을 발에 먼지처럼 가볍게 여기라.
- 2) 계속 전도하다 보면 많은 거절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3) 거절을 격려의 말로 받아들이라.
- 4) 거절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거절한 것임을 기억하라.
- 5) 복음은 거절당해도 전도인 자신은 거절당하면 안 된다. 불신자에게 좋은 인상과 신뢰감을 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 6) 거절하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

## 5. 거절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준비하라.

- 1)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안 믿는다.
  - 세상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우주와 자연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2) 하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리 부조리한가
  -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준 장남감을 망가뜨린 것이 부모 잘못일까요?
  -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사 인간에게 맡기셨으나 인간이 죄를 범하므로 세상이 부조리하게 된 것입니다.
  -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 3) 사랑의 하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는가?
  -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마25:41)

-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매달려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죄 사함과 구원도 그렇습니다.

4) 제사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 무안을 주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요즘은 살아계신 부모도 안 모시려 하는데, 조상들의 생신까지 챙겨드리시네요.

- 조상제사는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남은 가족들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있지 않은가요!
- 기독교 소개! 이러한 의식은 저희 기독교에도 추도예배라는 것으로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랍니다.

5)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 공감하라!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서는 달라졌다! 모든 신들이 별별 떠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 왜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는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닌가?)

- 객관적으로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마호메트도 자신은 예언자라고 했고, 공자도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십시오!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못주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7) 저는 나중에 믿겠다.

- 오늘 만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 지금 당신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8)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고요

- 결코 변호하거나 편 들지 말고, 대신 사과 하십시오!
- 미끄러지 한 마리 이야기. 알곡과 가라지. 교회에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환자 싫다고 병원 안갈까요? 신앙생활은 사람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9)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간다.

- 모든 일에 우선순위 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0) 술 담배 때문에 못 나간다.

- 한 술 더 뜨라! 괜찮아요! 교회 나오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됩니다.

11) 시댁이 불교라서!

- 칭찬해 주세요! 요즘은 다 저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세상인데!
- 영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갈 분 같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부처는 훌륭한 성인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12)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믿는다.

-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3) 나는 죄가 없으니 믿을 필요가 없다.

-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롬3:23) 당신은 정말 죄가 없습니까? 다툼, 미움, 음욕을 품어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죄가 정말 문제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요16:9) 죄의 삶은 사망이다. (롬6:23)

14)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 글씨를 몰라도 학교에 입학하여 배우면 글을 깨우치고 많은 지식을 갖게되지 않는가?

-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가서 들어야 합니다.

15)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 아무리 부인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16) 왜 믿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 공감하라. 저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살아가다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죄저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결국 고난을 이기고 승리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 6. 두려움이라는 최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전에 이미 두려움이란 최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 1) 두려움을 이기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 2)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 3) 전도자는 자존심을 주님께 맡겨 놓은 사람이라 여겨야 합니다.
- 4)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 5) 실제로 부딪쳐 봄으로써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 6) 선물을 갖고 가는 것은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 7) 내 얼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



이현식 목사 | 웨슬리전도학교 교장, 진관교회

나가는 전도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과 나가서 뿐만 놓아야 거두게 된다  
는 것입니다.(갈6:9)

## 1. 성경적 근거

- 1) 사도행전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 2) 마태복음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3) 마태복음 9:37-38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4)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어에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돈만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깔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의 힘도 있어야 합니다. 또 나라에는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힘의 종류가 참으로 많고, 또 힘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마28:18)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골2:3)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의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행16:31).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교의 소굴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행14:1) 그러자 유대교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을 향하여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행14:2)

전도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전도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전도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 그리고 팝박이 찾아옵니다. 특히 영적으로 보면, 전도란 마귀의 영토를 침범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귀에게 놀린 자를 빼내어 오고, 마귀의 영토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사단 마귀는 총동원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다방면에서 나타

나게 합니다.

바울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단이 이용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팝박을 받기도 하고, 폭력배에 의한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큰 장애물과 팝박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러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행14:3) 바울은 사단의 역사와 강력한 힘 앞에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힘이 들어서’입니다. 왜 힘이 듭니까? 전도를 내 힘으로 하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관계된 성경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빼 먹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되리라’에서 ‘리’자 하나를 빼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도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 한 글자를 빼면 그 순간 전도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힘으로 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 전략으로 전도를 해야 하니 얼마나 전도가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되리라!!!’ 바로 주님께서 전도의 주체가 되면, 전도의 책임도 방법도 다 주님에게 있으니 전도가 얼마나 쉬워지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즐기며 신바람 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쉬운 전도, 되는 전도, 행복한 전도를 원하십니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십시오.

## 2. 전략(마태복음 10:5-15)

### 1) 일단 세상으로 나가자(5절)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저희 진관교회가 위치한 은평 뉴타운이 조성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총 13개의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고 뉴타운 속으로 들어왔지만 부흥을 맛본 것은 소수의 교회들 뿐입니다. 특히 모교단의 어느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단종파에게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교회가 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환경적 요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전도하느냐, ‘교회’가 전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는 교회들은 교회가 전도해 주기만을 기다리며 전도하지 않았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매일 거리에 나가 전도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이미 1998년 한남동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새로 부임한 교회는 어느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임대 교회였습니다. 2층에 위치하고 있던 노래방과 1층과 지하층에 있던 상가들로 인해 3층 예배실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임대교회를 벗어나면 그 때 가서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현상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사명은 전도이고 임대교회라 할

지라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전도가 되도록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도를 독려했고, 매주일 점심식사 후에 1시간씩 전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 전도대를 조직하여 한남동 지역 곳곳을 다니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60여명 모이던 교회에 첫해에만 무려 35명이나 되는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전도를 통해 맷혀진 열매에 놀라며, ‘이런 곳에서도 전도가 되는구나,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 해에는 60여명이 전도 되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80여명이 전도되었습니다. 전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임 4년 만에 지상5층, 지하1층의 건물을 구입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서울연회의 전도실습교회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증명되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고, 환경이 열악해도 전도하면 전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를 통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부광교회(김상현감독)는 전도를 통해 놀라운 교회부흥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100만 복음전도자 세우기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통해 분명 조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은평동지방의 행복이가득한교회(박준기목사)는 2013년도에 작은 교회로 출발했지만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 매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완전히 자립한 교회가 되었으며, 지금은 주변의 작은 교회들의 연합 전도운동을 주도하고, 또한 해외선교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는 어렵다’는 생각은 모두 마귀의 소리입니다. 성

령은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행1: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면 전도 됩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 2)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프리카 동부지역에서 사역한 어느 선교사가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기존 선교단체가 세운 학교와 병원 등의 시설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나 크리스천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자신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 본래의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살다 보니 본질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그곳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눈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추장이 나에게 찾아와서 통곡하며 이렇게 말 했습니다. 왜 이런 생명의 복음을 지금에서야 전해주는 것입니까? 진작 복음을 알았더라면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았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또한 우리 할머니도 구원받았을 것인데, 왜 그 전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 주지 않은 것입니까?”

이사야 52장을 보면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52:7)

어떻게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름답지 못한 입도 에스겔 3장을 통해 소개합니다. 그 입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죽어 지옥에 간다면 나중에 그 사람의 피 값을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고.

지금은 말로 하는 전도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도란 결국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언어는 행동의 언어는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좋은 전도의 모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도는 먼저 전도대상자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후 대상자를 찾아가서 만나고, 찾아가서 만난 그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전도대상자인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찾아간 안드레와 빌립은 입을 열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들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마침내 주님이 계시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요1:41-45)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대상자를 향하여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신 말을 해 주겠습니까? 저 구청이, 저 동사무소가 혹은 세상의 복지 단체들이 우리 대신 말해 주겠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롬10:13-15)

나의 전도대상자에게 찾아가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내가 말하면 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하실 줄 믿습니다.

### 3) 생명의 논리로 전도하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과, 찾은 이후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은 사람은 몹시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티인 지역에서 잔치를 벌인다면 틀림없이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길을 잃고 혼매던 바보 같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뒤에 멀쩡한 양 몇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잃은 동전 한 닢을 찾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동전 한 닢 때문에, 동전 몇 닢을 허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큰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자신의 유산을 미리 가지고 나가 타락한 생활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동네가 떠들썩하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지금 주님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을 세상에서 더 없이 소중하게 여기신다

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 전도하는 일은 주판알 굴려서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경제논리를 뛰어 넘어 계속 투자하고 쏟아 부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까지 오기에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수고와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물질을 투자하며 섬기고, 발이 부르를 정도로 찾아오고, 그리고 목이 터질 정도로 복음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내가 구원받아 서 있는 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쪽에서는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기까지 세상의 경제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투자와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복음에 빛진 자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의 눈물의 빛, 수고의 빛,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온 그 사랑의 빛 등등 수많은 빛은 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빛을 갚는 심정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아니 거절을 당해도 찾아가야 합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

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 3. 포인트(points)

#### 1)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

한 총각이 매우 아름다운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녀가 사는 곳으로 가서 그녀를 담장 너머로 넘겨다보며 흠토했지만 사랑을 고백하기는커녕 말도 한번 붙여보지 못했습니다.

이 총각은 그 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꽃과 편지를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처녀는 꽃다발과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읽으며, 그 주인공이 보고 싶었지만 그 주인공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총각이 다시 그 처녀가 사는 곳을 찾아가 보았을 때 그 처녀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총각은 신랑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보다 더 정성을 들이며 공을 들인 남자가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신랑은 바로 우체부였습니다. 청년 우체부와 처녀는 매일 총각이 보내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졌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다가 결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보아야 마음이 통하게 되고, 자꾸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대상자를 정한 뒤, 그 사람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사

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상자가 정해진 뒤 반드시 건너야 할 첫 번째 다리는 만남(visit)의 다리입니다.(요1:43,45) 만나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도대상자를 내가 마음에 품으면 귀신은 귀신처럼 그것을 알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대상자에게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대상자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막4:8)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요 15:26, 16:13)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교회 교인들의 전도의 출발은 기도였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나가게 될 전도의 현장에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될 전도대상자의 마음에도 역사하십니다.

현장 전도를 통해 얻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대상자를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만나면 전도가 너무 쉽고 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대상자를 기도 중에 충분히 만나고 찾아가면, 기도를 통해 형성된 영적인 관계로 인하여 술술 풀려지는 전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백 번, 아니 천 번이라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 2) 꾸준하게 전도하라

어느 날 교인들에게 전도 실제 훈련을 시키면서 두 사람씩 짹을 지어 아파트 전도를 나가게 했습니다. 전도에 노련한 권사님과 전도를 막 시작한 젊은 성도님이 짹이 되어 나간 한 전도팀은 20층 아파트를 첫 전도지로 삼았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20층에서 11층까지 노련한 권사님이 시범을 보여 가며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초인종을 눌려야 하는지, 집 안에서 소리가 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문이 열렸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전도를 했고, 함께 간 성도님은 권사님 뒤에서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잘 보고 마음속으로 숙지하였습니다. 10층까지 내려온 후 이제는 역할을 바꾸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은 권사님이 보여준 그대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20층짜리 아파트 전도를 마친 후 권사님은 배운 대로 열심히 전도한 성도님을 칭찬했고, 둘은 또 다른 아파트를 향하여 갔습니다. 가르쳐 준 스승 이상으로 전도를 잘한 제자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듯 칭찬을 이어 가던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님이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면서 전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아까 전도 할 때 보니까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집집마다 문고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던데, 그 때 무슨 기도를 하셨어?” 그러자 그 성도님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 주님, 제발.. 저 집안에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빌라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3층 어느 집의 벨을 눌렀더니 문밖을 향해 누구냐고 고함치는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란 저는 2층으로 출행랑 도망쳤었습니다.

사실 전도를 나가기 전에 전도법이라든지, 전도요령 등등에 대해 훈련을 받았어도 막상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 하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겁이 나도 전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전도의 전문가, 전도의 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인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듯이 전도의 달인 역시 태어나지 않고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고수는 처음부터 전도를 아주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어설픈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 전도의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벼락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전도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잘 못 하고 두려움도 있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계속 전도하다보면 어느 순간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전도를 즐기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전도자로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도의 동기를 부여해 주고, 전도의 자리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연습생 정도의 실력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보면 큰 운동장에서 뛰는 프로 선수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잔 걸음이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다보면 꿈으로만 여겼던 정상에 서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에 왕도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보면 누구나 전도를 잘 하는 사람, 나아가 전도를 가르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 전도의 실제

오숙녀 전도사 | 열린교회

복음전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서 그 근원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전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할 명백한 사명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본업으로 여기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이제 전도를 두려워하고 전도의 자신감을 상실하여 전도의 불감증 전도의 기피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도의 자신감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일까요?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때문일까요?

전도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라 성도들이 두렵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려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에 전도의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성도가 적어지면서 교회마다 전도의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위임받은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이 위임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흐름은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원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전도하면 남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신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둘째, 전도할 때 상대가 거절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며 셋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시대의 정신과 싸울 수 없는 영적 무능력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들은 현 시대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인본주의 중심의 사고를 가졌으며, 절대적 진리를 반대하고 상대적인 진리로 평가하고, 조금 하게 오늘만을 즐기려는 세속주의가 현 시대의 특성입니다.

이 시대를 극복하며 전도할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전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동력을 받아야

합니다.

## I .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A, 전도의 영적인 준비

전도자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은 전도의 동력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동력이란 성령이 주권적으로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자에게 주시는 사랑과 권세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도동력을 받을 때 이 시대의 정신과 멀티미디어라는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어떤 장애물도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증) 가르치는 은사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교회의 섬김에 최선을 다했던 본인이 40세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아파트에 갔으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전도지 배포자로 수개월동안 전도하였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다녔던 본인의 실제적 전도 현장이야기

#### 1.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전도자는 기도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언어가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의 언어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언어가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언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언변이 좋은 전도자가 아니라 말에 영성이 담긴 전도자의 언어는 능력있는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언어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시대의 상황과 특성을 극복하지 못한 전도자가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인 진리 속에 해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진리는 바뀌고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정신을 극복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장벽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과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기도는 전도보다 앞서서 해야 하며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영혼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2. 전도대상자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여 복음을 들을 준비를 갖추게 해야 합니다.

관계전도는

1)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불신자 마음의 빗장을 열수 있습니다.  
2) 공통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불신자와 사귀십시오.

3) 관계전도는 단번에 결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예의바르게 지혜롭게 접근하여 간증을 통한 간접적인 전도가 필요합니다.

관계전도를 통해 신뢰가 쌓이면 불신자의 완고하고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습니다.

관계전도의 유익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복음이 전달됩니다.

전도자들의 생활모습이 메시지에 신뢰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관계전도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도입니다. 관계전도는 섬김의 전도입니다. 섬김을 통해 불신자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전도자들의 섬김을 통해 그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 전도대상자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간증) 축호 전도 : 불교인 부부전도, 미신을 믿는 상록이 엄마전도, 세상을 너무 사랑한 모태신앙 엄마 전도, 모태신앙이었던 지윤이 엄마의 간증, 이혼한 엄마를 전도와 양육을 통해 교회에 등록한 사례 등 기타 다수에게 복음을 전함.

### 3. 전도대상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언어를 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대상자와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전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도대상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전도자들은 어떻게 언어를 준비해야 하는지 전도현장에서 경험된 사례들을 가지고 이론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B. 전도의 실제적 준비

### 1. 스피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현장에서 전도자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1) 언어는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언어에는 신성이 있고 영적성질이 있습니다. 전도는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복음입니다.

언어에는 사상과 감정이 있는데 전도자의 스피치가 복음을 전달하는 매

개체이므로 사상과 감정 즉 영성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스피치의 능력이며, 곧 언어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을 지배하는 영성이 누구나가 중요합니다.

복된 언어, 능력 있는 언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수 있으며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달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성령이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장해서 말하게 될 때 말에 능력이 있게 되고 언어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 2. 스피치의 실제적 훈련

1) 적절한 제스처로 웃으면서 확신있게 말한다.

간증) 구치소 민원실 - 불교아주머니 와 불교아저씨 전도

2) 자연스런 태도로 억양이나 음조에 변화를 준다

간증) 복음 제시할 때 스피치를 준비해야 함.

3) 알아듣기 쉽고 명확한 바른 언어로 말한다.

간증) 버스에서 수세미 파는 아저씨

4) 남에게 호감을 주는 언어와 태도로 취한다.

간증) 버스에서 사영리로 증거하여 예수 영접한 아주머니

5) 예의바른 태도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한다.

간증) 서울구치소에서 강력계 형사에게 전도폭발로 복음을 전함.

6) 참 인격에서 우리나라에는 진실된 말을 하라.

간증) 구치소 민원실에서 IMF때 교회를 떠난 ○○교회 안수집사 전도.

7) 감정을 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라.

간증) 지하철 안에서 믿다가 낙심한 할아버지에게 사영리로 복음을

전함.

8) 전도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라.

간증) 지하철 역 앞에서 ○○교회의 권사가 자신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여 사영리의 그림으로만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여 영접하게 함.

### 3.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1) 전도자들이 전도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할 지역을 갖고 있지 않는데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나 상가나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전도할 때 두 명의 일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들이 밭 즉 지역에 나가 성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실제적인 전도가 필요합니다.

### 4. 전도자에게 맞는 맞춤 전도법을 준비하라.

전도자 자신에게 맞는 전도법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갖고 있었던 복음의 무기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전도 대상자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다양한 전도방법중에서 나에게 맞는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전도자에게 맞는 전도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18년간 아파트, 노방, 지하철, 터미널, 공원, 구치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에게 맞는 전도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영혼에게는 강력한 복음제시가 필요하며,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영혼에게는 간단한 복음제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능력, 전도자의 스피치, 전도자의 자세에 따라 결신이 높기도 하지만 전도자가 능력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에게 맞는 복음 제시할 방법이 중요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불신자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간증) 원백암사 보살에게 전도폭발로 복음을 전함.(몇개월후 보살이 원백암사를 떠남)

간증) 전북 정읍 백암마을에 전도를 방해하는 서울대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굴복하게 함.

간증) 서울구치소 조직폭력배에게 전도폭발로 복음을 전하여 영접하게 함.

간증) 서울구치소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한후 6개월만에 거듭나고 3년 6개월 양육함.

간증) 인천터미널에서 자살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접함.

간증) 서울구치소 민원실에서 자신안에 다른 영적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접함.

전도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핵심있게 전하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삶을 변화 시키는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도 문제 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전도는 어느 시대보다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결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자신의 말이나 이론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전도는 실패 할 수 있으나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면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의 실패는 전도자들이 팝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팝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신약의 복음시대나 지금 현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를 팝박하고 있으며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에게 동일한 팝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에 민감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를 극복하며 전도할 소수의 전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웨슬리전도학교 전도지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용하여 전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접촉(인사와 자기소개, 시간허락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 ○○○입니다.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선생님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 ○○○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연결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1.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경구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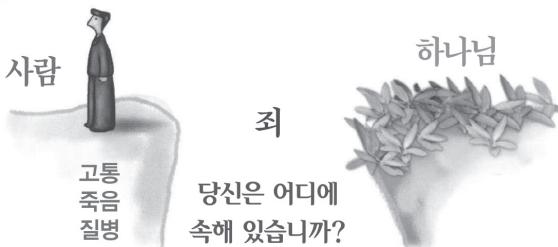


## 2.(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고통과 질병, 죽음, 허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도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요!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했고, 그 결과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 죽음과 심판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쪽입니까? 인간 쪽입니까?

## 3.(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런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와 죽음,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노력은 다 헛된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성경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사 64:6)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그림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종교, 도덕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연결어)

그렇다면 사람들의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 4.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죄와 질병에 빠져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경말씀도 읽어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 선생님은 두 곳 중,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여전히 인간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원하십니까?”(이편, 아니면 이편입니까?)

(연결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원하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 5. 예수님은 구원자(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경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1:7)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연결어)

선생님,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 6.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연결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접이란 선생님의 마음의 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해 듣고 믿는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감게 하고, 한 구절씩 따라서 하게 합니다.)

(영접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모르겠다'고 말하면 다시 영접기도를 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다음의 성경구절(고전 3:16, 롬 8:1-2, 요 16:23-24)을 읽어주면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만날 약속, 이름, 전화 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교회를 안내하는 면으로  
사용됩니다.

■ 제작문의 : 웨슬리전도학교 ☎ 02)399-4291



# 영적 전쟁과 담력 강화

손철산 목사 | 삼양중앙교회

## 영적 전쟁

끌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10)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알며 영적인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영적 전투를 승리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자녀로 부름 받았을 뿐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영적전쟁을 위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영적전쟁의 특공대이기에 영적전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하여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합니다. 육기에서 현실적 세계와 천상의 영적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과 전도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싸움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영적전쟁이란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하여 어두움의 영의 견고한 진을 허무는 것입니다.

##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1. 먼저 강건해 지는 것입니다.(엡6:10)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합니다.(단11:32)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 한 사람입니다.(마11:28).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강건해 집니다. 'be strong' 그분으로 인해 강건해 집니다. (요17:21-23)

강건함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물리쳐야합니다. (약 4:7)

### 2. 전신 갑주를 입어야합니다.

- a. 전신 갑주를 입기 전에 어둠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는 것입니다. (눅 15장)
- b.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5:22-23) 성령의 열매, (골3:10) 새 사람

① 진리의 허리띠. 전쟁에서 옷을 정리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합니다. 또한 이 진리는 진실된 삶 곧 정직입니다.

② 의의 흉배(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청의, 값없이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③ 평안의 복음의 신발. 중인의 삶입니다. 항상 중인의 생활을 해야합니다. (벧전3:15)

④ 믿음의 방패. 로마의 방패는 방어용이면서 공격용 무기입니다. 믿음

은 사단을 공격하는 능력 있는 무기입니다. 믿음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신분을 상징합니다. (벧전2:9)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⑥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등을 보이지 않고 물려서지 않아야 합니다.

### **영적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 즉 사탄인 것입니다.(요일5:16, 요16:, 고후4:4, 앱2:2, 마4:1, 요8:44, 고후6:15, 계12:9) 마틴 루터는 사단을 끈에 묶인 불독(dog)이라 하였습니다. 끈 범위(죄)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한된 능력과 활동의 영역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 **영적전쟁의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엡6:12) 사단,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입니다.

#### **1. 정사, 통치자들(국가의 영역)**

나라의 근본적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자를 미혹하고 조정하는 자, 정치인들, 국무위원들 조종하는 더러운 영을 물리쳐야합니다.

#### **2. 권세(지역의 영역)**

특정한 집단, 지역을 조종하며 영향력 끼치는 악한영적인 세력입니다.

#### **3.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상의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전하

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 4. 악의 영

개인영역으로 개개인의 삶에 영향력 끼치는 영입니다. 각 나라에 체계적으로 역사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죽은 자가 귀신이 되어 오지 않습니다.

#### 무엇으로 영적전쟁을 할 것입니까?

1. 예수이름 (신앙의 명령) 선포 (막 16:17)
2. 말씀 (약 4:7)
3. 성령의 능력(성령 충만) (마12:28)
4.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계12:11)
5. 진리를 선포 (창 39장, 롬 1:1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망 없이 감사)
6. 십일조 재정으로 사단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돈 너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 선포하십시오!

#### 어떻게 영적전쟁을 할 것입니까?

1. 예배
2. 기도
3. 용서와 사랑
4. 전도
5. 땅 밟기

하나님 앞에 서야합니다. 그분의 자녀와 군사로서 하나님을 주목해야합니다. 사단을 주목하고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분을 높이며 순종할 때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 담력 강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상 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심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심증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구분하고 그 극복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 1. 소심증

#### 1) 소심증이란?

(1) 기(氣)가 약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기가 약한(소심증) 사람의 특징은

- ① 사람이 지켜보면 잘하던 것도 못하고 별별 땅니다.
- ② 좌석에서는 잘 떠들다가도 막상 연단에 서면 말문이 막힙니다.
- ③ 연습 때는 잘하다가도 시합 때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참패합니다.
- ④ 평소보다 잘 해야 되는 상황일수록 더 못하게 됩니다.

(2) 이유는 중추신경의 과잉반응에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중추신경에서 시발하기에 그 행위가 마음먹은 대로 적절히 수행되기 위해선 중추신경의 모든 기능이 일정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기가 약한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잉반응(흥분)하여 자기 폐이스를 잊게 됩니다.

(3) 이로 인하여 자율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오줌이 자주 마렵고 입술이 타고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나고 설사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기가 센 사람은 떨리지 않고 태연자약하고 웬만한 자극에도 쉽사리 기가 흔들리지 않는 배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 패기, 정기, 배짱은 기를 강하게 함으로써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훈련이 중요하며 적당한 영양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소심한 사람의 단점

(1)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을까 지레 짐작을 하며 결과에 너무 민감하여 잘못될 경우에 비판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2)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음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사람과 대화 시 지나친 긴장으로 말더듬이가 되고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며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대인공포증에 빠집니다.

(3) 소극적입니다. 언제나 비관적이며 염세적입니다. 스스로 쉽게 자책하며 우울증에 빠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저하고 망설이며 우유부단합니다.

## 3) 소심한 사람이 되는 요인

### (1) 열등감

- 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점만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 ②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고 결과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
- ③ 타인은 단점보다 장점을 보나 자신은 장점보다는 단점만 봅니다.

### (2) 내성적 가계(家系)

- ① 부모님들의 내향적 성격
- ② 형제들의 내성적인 성격과 행동
- ③ 자신의 내성적 성격

### (3) 환경적인 요인

- ① 어린 시절의 환경이 남보다 못한 환경이었거나, 남보다 재능이 부족한 경우.
- ② 거듭된 실패적인 요인
- ③ 무경험

#### 4) 소심한 사람(내성적인)의 장점

사람들의 70% 이상이 자신은 소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겁쟁이며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심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담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심한 사람들은

- (1) 확고한 자아가 있습니다.
- (2) 유연한 사고가 있습니다.
- (3) 냉정한 관찰력이 있습니다.
- (4) 상상력과 독창력이 있습니다.
- (5)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 (6) 경제관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 (7) 성실성이 있습니다.

#### 5) 소심을 극복하는 방법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동물의 개체보존의 본능반응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상황을 과장 해석함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됨으로 중추 신경에 과잉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시켜야합니다.
  - ① 자신의 장점을 찾고 중요성을 인식해야합니다.
  - ② 자신의 약점을 역이용하고 약점을 숨기지 말고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되게 하여야합니다.
- (2) 남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주제를 한 가지 이상 가져야합니다.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는 이야기, 중요하고 유익한 이야기, 전문성이 있는 이야기 등 자신이 관심이 있고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주제로 삼습니다.
  - ① 계획을 세웁니다.

- ② 철저히 연구, 준비, 검토하고 폭넓은 연구로 정보에 우위를 차지해야합니다.
  - ③ 순서를 배열합니다.
  - ④ 재 수정합니다.
  - ⑤ 간결한 말로 정리합니다.
  - ⑥ 기회를 보아서 발언합니다.
  - ⑦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술을 배워야합니다.
- (3) 연상법
  - (4) 집중법
  - (5) 역설법
  - (6) 툰 조절법
  - (7) 암시법(플러스 회상)
  - (8) 즐거운 훈련법
  - (9) 상대 심리법

## 2. 담대함

담대함이란 겁이 없고 용기가 많은 것을 말합니다.

### 1) 담대함의 근거

- (1)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 1: 5~6, 대하 32:7)
- (2)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수 1:6,7,9; 시 31:24; 요 16:33)
- (3)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삼하 10:12)

### 2) 담대함의 시기

- (1) 말씀을 전할 때 (행 4:29; 행 28:31; 행 23:31; 행 23:11; 빌 1:14)
- (2) 환란을 당할 때 (요 16:33)

- (3) 복음을 전할 때 (엡 6:19; 행 28: 31)
- (4)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때 (빌 1:20)
- (5) 성전을 건축할 때 (대상 28:20)
- (6) 죄를 책망할 때 (삼하 12: 1~14)
- (7) 믿음이 위협을 받을 때 (단 3:16~18; 단6:10)

### 3) 담대함의 방법

- (1) 의롭게 삶으로 (잠 28:1)
- (2) 기도함으로 (행 4:29; 앱 6:19; 요일 5:14)
- (3) 하나님에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히 13:6; 신 31: 6; 민 13:30; 수10:25)
- (4)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 4:31; 행1:8)
- (5)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롬 15:15; 딤후 2:1)

## 3. 담력강화의 실제

- 1) 간구법
- 2) 이열치열법
- 3) 동행법
- 4) 교환법
- 5) 충전법
- 6) 반복법



# 전도자의 예절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 대화예절)

박정희 권사 | 월드인재개발원 대표

이미지(心像, 影像)는 '마음속에 얹어로 그린 그림'(mental picture, word picture)으로 정의됩니다. 전도자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떤 얹어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 긍정적이다, 반듯하다, 유쾌하다, 따뜻하다, 배려가 많다. 등 긍정적인 이미지만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도자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이미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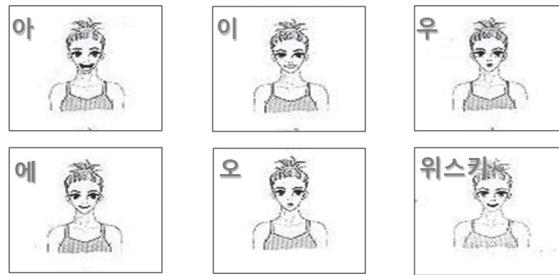
말보다 보여지는 것이 의사전달 요소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느낀 상대의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다운 이미지를 잘 갖추는 것은 전도자에게 중요하므로 스스로 점검하고 노력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표정, 복장, 제스처, 자세, 음성, 말씨 등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신경 써서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표정과 함께 밝은 인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밝은 인사는 밝은 표정과 함께 밝은 음성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상대를 만나기 전이나 집에서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는 스마일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표정이 준비되었다면 인사연습을 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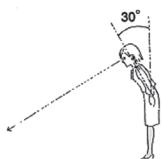
바른 인사는 바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두발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시선을 상대를 보고 미소지며 상체를 낮춰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컨택과 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결국 인사는 상대방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방법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 \* 인사의 의미

- 마음과 마음의 첫 만남, 그 표현 방법입니다.
-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친절을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감동이며
- 인사는 상대방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여지는 부분에서 신뢰를 결정하는 복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복장을 갖추는 기본요소는 3가지입니다. 청결한가, 단정한가, 그리고 품위가 있는가입니다.

청결은 깨끗하게 씻거나 세탁해서 입는 것을 말한다면 단정함은 신경써서 손질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품위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그리스도인 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나 상황에 맞게 복장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또는 너무 성의 없는 복장은 나의 내면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갖는 신뢰는 낮거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성의 경우 이마를 드러낸 헤어스타일이 인상을 좋게 보이도록 합니다. 전도시의 복장은 되도록 양복을 입도록 하십시오. 점퍼보다는 재킷이 격식을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할 복장은 양복에 흰양말이나 발목 양말은 신지 않도록 합니다.

여성의 경우 지나친 화장이나 향수 등의 사용은 지양하고 단정한 화장과 머리 손질, 검소한 복장을 갖추도록 합니다.

여성은 화장을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립스틱만은 가볍게 바르도록 하며, 특히 여름 철에 슬리퍼를 신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보이는 언어라고 부르는 자세와 제스처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건강하고, 겸손하며,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자세에서 건강하고, 겸손한 이미지가 느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를 바르게 편 자세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상체를 15도 정도 기울이는 자세를 하고 있는가요?



안내하거나 가리킬 때 손가락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등의 제스처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손바닥을 가지런히 펴서 안내하거나 가리키도록 합니다.

테이블 자리로 안내해서 얘기를 나눌 때 중요한 사람으로 배려하는 방법은 전도대상자를 상석에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석은 기본적으로 입구에서 면 안쪽 자리이며 등을 기대고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자리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줄 때 본인보다 아주 어린 청년이나 학생이라 할지라도 정중한 자세로 전도물품을 건네도록 합니다.

물품을 전달할 때도 상대방의 눈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띠도록 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의 신뢰이미지를 결정 짓은 것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와 화법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가 담긴 언어표현과 공감화법을 통해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대화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화 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 1. 경어사용

가까운 사람일수록 언어사용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깝게 지내는 관계일수록 언어사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하자라고해서 함부로 하대하거나 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명령형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명령형의 표현을 부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 화요전도 모임에 모두 참석하세요(명령형)

화요전도 모임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청유형)

화요전도 모임에 모두 참석해주시겠습니까? (의뢰형)

3. 부정의 답변은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표현을 찾아서 사용합니다.

\* 몰라요/ 없어요 / 안돼요

몰라요 :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 여긴 없는데 혹시 다른곳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돼요 : 지금은 어렵지만 오후에는 가능한데 괜찮으실까요?

4. 긍정의 맞장구를 사용합니다.

- 네. 좋은 말씀이세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정말 잘됐어요.

5. 쿠션언어를 사용합니다.

부탁 등으로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수고를 하게 될 경우에 미안해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수고스럽겠지만 등

\* 권사님! 수고스럽겠지만 모임 후에 의자정리 부탁드립니다.

\*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예배 후에 식당 봉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대화 시에 평소의 습관대로 언어사용을 하게 되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서 배려가 담긴 언어사용을 통해 누구를 만나든 위로가 격려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시 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지만 사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잘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많고, 말도 잘하긴 하는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결국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혼자만 이야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모바일폰으로 인해 모임이나 대화 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화 시 다음과 같은 태도들은 대화를 방해하고 관계까지 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거나 건성으로 듣는 것, 눈을 쳐다보지 않고 듣기, 팔짱을 끼고 듣거나 손장난을 하는 것, 말을 중간에 끊는 것, 말끝이나 실언을 꼬집어주고 대화를 방해하는 것.

휴대폰을 들여다 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대화 시 위와 같은 태도들은 대화를 방해하고 관계까지 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고 대화 시에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집중하면서 경청할 수 있어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들을 청(聽)자를 여러 가지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聽'은 '듣다'라는 뜻을 지닌 중국어입니다. 한자 왼쪽 변에는 귀(耳)가 자리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십(十)', '눈(目)', '하나(一)', '마음(心)'과 같은 한

자들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이 한자는 경청이란 눈을 통해 상대를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한 채 귀를 기울이는 일임을 새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청은 눈을 보고 귀로 들으며, 입으로는 반응을 보이고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 속에 담긴 의미와 말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경청자세야 말로 참다운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전화 통화에서도 중요하므로 전화통화 요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밝은 음성과 명확한 발음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수화기에 상대방의 정보가 뜨게 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모르는 전화번호라면 상대방을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한 내용을 잘 듣고 다시 확인합니다.

끝 인사를 한 다음 상대방이 나보다 연장자일 경우 3초 후에 전화를 종료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불신자나 초신자일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편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성령 충만, 양육, 하나님 아버지, 사탄, 영혼구원...등

전도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우리가 불신자나 초신자 때를 떠올려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가짐은 물론 몸가짐과 말씨를 스스로 살피고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전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고, 얼굴은 그늘지고, 말은 날카롭다면 그 누가 우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할까요?

전도자로 나갈 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밝은 표정과 기분 좋은 인사, 그리고 단정하고 품위있는 용모, 배려가 담긴 제스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전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교회 중보기도사역과 전도일꾼 세우기



유재구 목사 | 열우물교회

언젠가 한 보디빌더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던 곳 주장이 그의 근육을 보고 근육들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 그는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자신의 튀어나온 장딴지 근육과 허벅지, 이두근, 삼두근을 움직이면서 마치 어떤 대회에 나갔을 때 연기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동안 감탄의 눈길로 그 놀라운 기인을 기켜본 주장이 물었습니다. “그밖의 다른 어떤 용도로 그 근육들을 사용하십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육질의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거대한 근육들을 사용하는 용도가 그게 전부란 말입니까?” 주장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엄청난 낭비로군요” 그 주장은 질색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전쟁의 현장에서 주장이 질색한 보디빌더와 같지 않습니다? 주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전신감주로 무장했습니다. 대적을 맞설만큼 근육질로 무장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힘이나 무기를 단지 자랑하기 위한 전시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시간낭비한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장했다면 이제 링으로 올라가든지 전쟁터로 나가든지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가 그토록 무장한 결과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여주고 열매를 맺는지를 마귀일을 멀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전도폭발을 이루게 하는 뇌관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말씀이 영적 싸움을 위한 폭탄이라면 기도는 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터지고 폭발하려면 기도라는 뇌관이 먼저 터져야 합니다. 폭탄을 터뜨리기 위하여 뇌관을 먼저 터트려야하듯이 전도의 말씀이 터지려면 먼저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하여 말씀도 암송하고 전도 전략도 연구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지만 막상 전도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전도의 중요성도 잘 압니다. 전도의 방법도 잘 압니다. 전도할 때 해야 할 말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도의 열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을 잊고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산고의 중보기도가 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 **1.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도왕을 만들어내는 가장 귀중한 비결은 전도하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매임을 당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새생명을 출산하기위한 산고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먼저 미사일공격으로 적의 핵심기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육군이 침투하기 위해서 먼저 미사일공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사일공격으로 적을 무력화시킨 후 아군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교두보로 군인들을 투하합니다. 투하된 군인들은 육지전으로 돌입합니다. 아무리 미사일공격을 해도 적의 진지에 아군의 깃발을 꽂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기도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전도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대상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합니다.

## 2.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 1)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전도자로서 먼저 바른 예배자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승리한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300명의 기드온 군사의 수십만의 미디안족과 승리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도, 연합군을 찬양단을 앞세워 승리했던 여호사밧의 승리 역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불신의 권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 바로 세워져야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는 기본입니다.

### 2)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먼저 평안을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

셨습니다. 축복은 저주를 멈추게합니다. 또한 축복은 사단을 결박시킵니다. 우리의 축복은 복음에 대하여 눈을 멀게 한 사탄의 활동을 제약합니다. 축복과 화평을 구하면 사탄의 권세는 약화됩니다. 따라서 전도를 위해 전도대상자와 교제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축복하며 화평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도 동역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마9:37-38,눅10:2). 전도할 대상을 위해 기도할 것과 전도일꾼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할 사명을 갖습니다.

### 3) 예수님이 자신도 기도로 전도를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병고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신 후에 전도를 나가셨습니다(마가 1:35-39절, 누가4:42-44). 전도의 일꾼을 택할 때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 4)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때문입니다.

복음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토록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고 성령받은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되었습니다. 그들의 닫혔던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행 4:29-31)

### 5)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처

음 두 장은 기도와 권능받는 일에 대한 사례를 제공합니다(행 1:8).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증거자가 되기 이전에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행 1:14). 그들이 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행 2:1-4).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루에 삼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해야 전도의 능력도 주어집니다. 모세도 불떨기나 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이사야도 누가 날 위해 갈고하는 음성을 듣고 선자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자가 되기전에 먼저 기도하며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야합니다.

#### 6) 기도는 전도대상자의 필요를 알게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와 접촉하여 그가 필요로하는 것을 채워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자는 기도를 통해 전도대상자에 대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되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치유할 때도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의 선행이나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못한 그에게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견도록 했습니다(행 3:1-10). 중보기도자는 근본적인 필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시대에 지치고 혼미한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할 대상의 긴급한 문제가 무엇이며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복음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7) 기도는 전도대상자의 필요를 알게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와 접촉하여 그가 필요로하는 것을 채워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자는 기도를 통해 전도대상자에 대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되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치유할 때도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의 선행이나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못한 그에게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도록 했습니다(행 3:1-10). 중보기도자는 근본적인 필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시대에 지치고 혼미한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전도할 대상의 긴급한 문제가 무엇이며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복음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8) 전도할 때 두려움을 사라지게하고 용기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펍박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행4장, 딤후 1:7). 버스나 전철에서 외판원들이 장사할 때 부끄러움도 모른 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판매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에도 이처럼 열심인데 영생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일지라도 두려움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성령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 전도할 때 두려움을 사라지게하고 용기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필박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행4장, 딤후 1:7). 버스나 전철에서 외판원들이 장사할 때 부끄러움도 모른 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판매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에도 이처럼 열심인데 영생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일지라도 두려움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성령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 불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멀하게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합니다(고후 4:4). 불신자들의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절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보다 언제나 강하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도록 도와야합니다(행 26:17-18).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리며 도시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마귀의 일을 멀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

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역사는 간수장과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한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멀하고(요일3:8), 잃어버린 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눅19:10,요10:11-12). 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한 중보기도의 사역이 교회 안에 바로 세워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눅 19:10).

#### 11) 도시전도를 위하여 땅을 회복하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과도기적인 아픔과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인구의 사분의 삼이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야말로 중보기도의 대상이요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선교 중심지역이 되었습니다.

(렘 29:7)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우리 크리스천 선교의 새 비전은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고자 한다면 도시의 복음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시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그 나라의 신화를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이야기도 동산에서 시작해서 도시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과 종류별로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기름졌고 모든 것이 그 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땅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잘 다스리도록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고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창3:17)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도시가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여 묶여있는지 모릅니다. 도시야말

로 하나님의 축복된 동산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위해 도시전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대하 7:14). 우리의 도시가 다시금 수축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중보기도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뢰가 발견되면 더 이상 지뢰가 아니듯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면 악령의 역사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민13:17-20 중보기도 사역은 전도하려는 대상과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교회적 복음화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한 가지 임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적진으로 들어가서 침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교회 건물의 벽안에 제한하지 않고, 밖으로(세상 속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밟기 기도행진입니다.

기도행진을 하며 노방전도를 하며 기도하는 도시전도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21세기 도시들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도시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도시들이 제 아무리 철문을 굳게 닫아걸고 놋쇠 막대기를 질러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씩 하나씩 모든 도시에 들어가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문을 걸고 빗장을 지른 여리고의 모습은 마음 문을 닫은 채 좀처럼 열어주지 않는 현대인들과 이 시대의 가정, 도시들의 형상입니다. 21세기 도시들은 높은 벽을 둘러치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요새들임은 틀림없습니다. 대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조직 폭력, 노숙자, 동성애, 매춘, 인종 차별, 폭력범죄, 냉소적인 태도,

정치적인 부패, 인본주의적인 마음, 빈부격차, 가정 폭력, 가정 파괴등 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사단의 요새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은 모든 죄악과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사단의 요새를 부수며, 도시들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기도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전쟁을 위하여 나와 교회를 점검하고 도시를 영적으로 회복하며 점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땅을 밟으며 기도행진해야 합니다.

### 3. 영혼을 출산하기 위한 산고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1)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내 중보기도사역을 체계화하십시오.

(고후 10: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중보기도 사역이 교회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역자들이 체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매뉴얼과 사역팀운영을 체계화합니다. 중보기도실과 중보기도학교, 중보기도사역팀과 중보기도카드운영, 중보기도헌신예배와 수련회등을 통해 중보기도사역을 사역화하며 체계화합니다. 아울러 교회 예배와 모든 모임을 중보기도모임화시키는 노력으로 기도전도의 문을 열어야합니다.

2) 교회적으로 예배나 모임때마다 산고의 중보기도시간을 체계화하십시오.

수요예배: 설교후 찬양과 중보기도 / 새벽기도회: 설교 후 중보기도

금요기도회: 찬양과 중보기도 중심집회

오후예배: 중보기도사역헌신, 중보기도간증, 찬양과 중보기도

속회예배등: 속회 마무리는 항상 중보기도로

중보기도수련회 / 중보기도학교

전도대와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기도전도집회/ 전도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릴레이 금식중보기도  
새생명전도잔치를 위한 중보기도 / 속회별 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  
주일낮집회를 통해 중보기도사역강조 / 중보기도사역의 홍보와 운영  
팀의 활성화  
중보기도사역과 중보기도운동의 네트워크(전국,지방,교회)

### 3) 영혼구원을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전쟁을 준비하기위해 전신갑주를 입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우리가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엡 6:18-20). 기도에는 방어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깨어서 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18). 기도하는 사람은 초병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면밀히 경계하듯이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의 정욕, 마음의 생각, 인간의 판단등이 시험으로 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일도 동일하게 영적 전투의 전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해야 할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자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있으십시오. 성령의 검과 항상 성령안에서 기도하며 마귀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보혈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성령의 검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힘써 깨어서 영으로 기도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와같은 전진하는

중보기도와 전도의 사명이 불일듯 일어날 때 마귀의 일이 멀하고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지역과 민족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복을 주어질 것입니다.

전도왕을 만들어내는 가장 귀중한 비결은 전도하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전도대상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갈 것입니다. 이 능력을 에스더가 알았기에 사단같은 하만의 계교로 유대인들이 멸절하게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하면서 금식기도로 하만의 계교를 파했고 민족을 구원하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한 민족의 구원을 좌우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수갑입니다. 더러운 사단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영적 포승줄입니다. 영적전쟁의 최전선에서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한 산고의 중보기도가 식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영월 성은교회 전도 이야기



이상주 목사 | 성은교회 담임

## 1. 영월 성은교회 소개

영월 성은교회는 1991년 4월 창립된 교회입니다. 저는 1998년 1월 성은 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성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부임 당시 성은교회는 전형적인 농촌의 미자립 교회로서 10여명의 성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을 개조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을도 50여 가구 밖에 되지 않으며 교회가 시내와도 떨어져 있어 사람이 전도되고 교회가 부흥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은교회는 전임 목사님 때부터 교회 대지 문제로 인해 재판에 걸려 있었고, 결국 교회가 폐소하여 교회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성은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을 했고, 부임하자마자 당장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은교회는 1999년 2월 대지 349평을 구

입했고, 2000년 5월 정동제일교회 개척전도회의 도움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교육관과 꿈을 담은 도서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후 성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매년 배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임할 당시 1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130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서 몇 년 만에 자립 교회가 되었고,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과거 성은교회 모습〉



〈현재 성은교회 모습〉

## 2. 영월 성은교회 전도 이야기

저희교회 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벽돌 한 장 쌓기!”

신학대학을 다닐 때 담임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목회는 벽돌 한 장 쌓기와 같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지어야 하듯, 교회도 하루아침에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성은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20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도되어 들어와 지금의 성은교회가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성은교회 전도 방법의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전도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성은교회 전도 방법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신자 초청잔치’와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은교회 전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1) 태신자 초청잔치를 통한 전도

성은교회는 2003년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추수감사절을 태신자 초청잔치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영혼을 추수하여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년 추수감사절을 태신자 초청잔치로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듯 태신자 초청잔치는 ‘관계 전도’에 해당되는데, 자기와 관계된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친구들을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얼굴부터 찡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태신자 초청 잔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관계된 가족, 이웃,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기에 얼굴을 찡그릴 리 없습니다.

저희교회 어떤 권사님은 2003년 이후 계속하여 남편을 태신자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남편이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권사님은 전혀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매년 남편을 태신자로 작정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매년 자녀를 태신자로 작정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년 태신자로 작정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9월 첫 주 태신자를 작정하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태신자 초청잔치를 합니다. 태신자 초청잔치가 좋은 것은 교회가 이 때 만큼은 더욱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설교의 핵심도 전도와 영혼구원에 관한 것이고, 각 속회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기관이 태신자 초청잔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감사한 것은, 태신자 초청 잔치를 통해 매년 꾸준히 열매를 맺고 그 태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년이 되고보니 지금 성은 교회 성도들의 상당수가 태신자 초청잔치로 초청되고 정착한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14년째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다 보니 옛날엔 누군가의 태신자였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 그가 전도되어 교회에 나와 정착하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태신자로 품고 작정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태신자 초청 잔치는 생명을 낳고 또 낳는 생명을 낳는 운동입니다.

태신자 초청잔치가 더욱 귀한 것은,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전혀 품지도 않은 다른 영혼들도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든 영혼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얼마나 좋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신자 초청잔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① 태신자 작정

성은교회는 매년 9월 첫 주에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8월이 되면 주보에

광고를 시작합니다. “9월 첫 주에 태신자 작정서를 나누어 드릴 테니 그동안 기도하며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세요.”

9월 첫 주가 되면 어른은 물론,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이렇게 작정되는 인원이 매년 70-80명이 됩니다.

태신자 작정은 태신자가 교회에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두 해 작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태신자가 교회에 나올 때까지 매년 작정을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작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② 태신자를 위한 기도

태신자를 작정하여 제출하면 교회는 태신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는 담임목사가 매일 새벽마다 작정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회에서는 자기 속회원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중보기도회에서도 교회 전체의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다고 해도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에 태신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전쟁에서의 승리가 태신자가 결신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입니다.

### ③ 아가페 만찬

11월 초가 되면 속회별로 아가페 만찬을 실시합니다. 아가페 만찬은 속회원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을 속회를 드리는 가정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도 하도 교제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속회원들은 간단한 간증과 찬양, 복음 메시지, 게임 등을 분담하여 준비합니다.

속회별 아가페 만찬이 필요한 이유는 태신자가 곧바로 교회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미리 속회별로 아가페 만찬을 통하여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다음 자연스럽게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아가페 만찬은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도 실시합니다.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는 교회에서 아가페 만찬을 하는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아가페 만찬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며 친구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합니다. 아가페 만찬은 초청하는 아이들도 초청받는 아이들도 너무나 즐거워하는 잔치의 자리가 됩니다.



〈중고등부 아가페 만찬〉



〈평안 속회 아가페 만찬〉

#### ④ 태신자 초청잔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되면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합니다. 이때, 설교는 쉬우면서도 분명한 복음 메시지로 준비하여 전합니다. 예배 후에는 태신자들과 전도자들에게 간단한 선물도 나누어 주고, 점심에는 함께 푸짐한 식사를 나누며 태신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천국 같음을 느끼게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날 교회 분위기가 태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부터 식사까지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합니다.

태신자 초청잔치에 나온 태신자는 이후 교회 차원에서 관리를 시작합니

다. 그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세심하게 보살핍니다. 그리고, 태신자뿐만 아니라 태신자가 초청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실망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계속하여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통한 전도

성은교회는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태신자 초청잔치가 ‘관계 전도’로서 그 대상이 주변의 특정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면, 영월 아름다운 신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영월 아름다운 신문은 매월 발행되는 월간신문으로 1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면 중에서 1면과 2면, 15면과 16면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와 소식들이 소개되고, 나머지는 아름다운 신문사에서 내용들을 제작해 줍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나 좋아서 기독교인들은 물론 불신자들도 좋아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만들면서 느낀 것은 아름다운 신문이 전도 방법으로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전도 물품을 주어야 마지못해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신문은 사람들이 잘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월 아름다운 신문을 기다린다고 까지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아름다운 신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신문은 좋은 전도의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신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2면은 담임목사의 칼럼과 성도들의 간증으로 구성합니다. 담임목사의

칼럼은 주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쉬우면서도 분명한 복음 메시지를 싣습니다. 2면 하단에는 성도들의 간증을 싣는데, 성도들 개개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진솔하게 싣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데 있어 간증보다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간증을 보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문에 자신의 간증을 쓰면서 지난날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15면은 지난 한달 간 교회 소식이나 지역 소식들을 사진과 함께 싣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신문에 나오는 것 같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진과 함께 소개되는 교회 소식들을 보며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16면은 다음 한달 간 교회 행사나 지역 행사를 소개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신문을 통해 교회나 지역 행사를 홍보하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영월 아름다운 신문은 매달 3000부가 발행되는데, 우리는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전도지로 삼아 지역 전도에 힘씁니다. 먼저, 매월 첫 주 토요일에는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가지고 시내 전도를 나갑니다. 영월 시내의 병원들과 가게들, 역, 터미널, 그 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아름다운 신문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인들에게는 전도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영월 아름다운 신문이 2000부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00부는 일반 신문사 간지로 보냅니다. 신문사 간지를 통해 영월의 관공서와 사무실, 가게 등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까지 아름다운 신문이 보내집니다.

성은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영월 아름다운 신문이 영월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기 구독을 신청기도 합니다.

성은교회가 위치한 곳은 영월 시내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은교회는 거의 매주 새신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성은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신문은 전도를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꼭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고, 많은 영혼들이 아름다운 신문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영월 아름다운 신문을 오래 하면서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월 아름다운 신문이 단지 저희 교회만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 영월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둡고 슬픈 뉴스가 가득한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과 교회들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널리 전하는 작은 빛이 되는 영월 아름다운 신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신문이 대도시는 물론이지만 영월처럼 중소도시에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바람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감리교회들이 아름다운 신문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을 널리 전했으면 합니다.



〈영월 아름다운 신문〉

### (3) 꿈을 담은 도서관을 통한 전도

저희 교회는 2012년에 교회 자체적으로 꿈을 담은 도서관을 건축하여 개관했습니다. 주일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이나 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 작은 도서관을 건축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영월 아름다운 신문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전도 방법이라면, 꿈을 담은 도서관은 어린이들과 어린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꿈을 담은 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토요 독서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어른들도 함께 책을 읽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 가족이 스스로 왔는데, 정선에서 영월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는 중에 교회에 도서관이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 엄마는 매 주일 예배 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행복해 합니다.

꿈을 담은 도서관은 불신자들에게도 많은 호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신자들은 교회를 좋게 보며 교회에 대한 많은 호감을 보입니다.

저희는 꿈을 담은 도서관을 통해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토요일에는 도서관 주관으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꿈을 담은 음악회도 갖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른 비율과 어린이, 학생 비율이 60대 4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이 많고, 주일이면 어린이들로 교회가 북적입니다.

저희는 5년째 꿈을 담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한국 교회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른 중심의 교회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다음세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회들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확신

하건대 많은 어린이들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 교회로 인도될 것입니다.



〈꿈을 담은 도서관〉

## 맺는 말

이상과 같이 영월 성은교회 전도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들에 비해 부족하기 짹이 없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월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것도 전형적인 시골의 미자립 교회가 자립 교회가 되고 부흥 성장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은교회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년간 태신자 초청 잔치와 영월 아름다운 신문, 꿈을 담은 도서관을 꾸준히 해오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기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은교회의 비전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은교회의 비전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겨자씨가 처음에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성은교회가 26년 전 영월 땅에 심겨질 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았습니다. 한때는 이 겨자씨가 세상 풍파에 죽거나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겨자씨가 잘 자라 주었고 이제는 조그만 나무가 되었

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나무로 자라나 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 교회학교 부흥을 교회 부흥으로 연결시켜라



강득환 목사 | 성곡교회

## 1. 성곡교회 상황과 목회적 고민

성곡교회는 한국전쟁 직후 세워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고, 전쟁의 상흔으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민족 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성곡교회는 개척되었습니다. 현재 성곡 교회는 평택시 외곽 농촌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오려면 차량으로 20분 정도를 시골로 들어와야 하는 지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담임목사로 부임할 당시 교인들의 대다수는 주변 마을의 시골 어르신들이었고, 그 자녀들 중 일부가 시내에 살면서 예배에 출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교회, 장년층과 노년층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은 앞으로 목회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노년과 중년에 중점을 둔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기존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역을 하게 된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안정적인 목회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젊은 성도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기 어려워질 것

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교회의 모습은 불 보듯 뻔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시대적 도전에 응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눈에 선하게 보이는 교회의 어두운 미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몇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 슬로건을 강조하며 마음속에 비전을 새겼습니다.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골에 위치한 교회이지만 도시교회보다 더 도시교회가 되자! 둘째,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앞서가는 교회가 되자! 셋째, 다음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학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 넷째, 시골이지만 마음만큼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이 슬로건이 교인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교인들은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부임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하는 것(딤후4:7)과 같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성곡교회의 변화는 활목할 만 하다거나 두드러질 정도의 양적인 성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체질과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으며, 인근 타 도시에서 찾아들어오는 교인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골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앞서가는 젊은 교회로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이에 성곡교회의 변화와 그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 2. 교회학교의 부흥과 교회 부흥을 꿈꾸다

오늘날 한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 여론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더욱 닫아걸게 만들고 있습니다. 총동원주일, 전도축제, 새생명 전도운동, 기독 연예인들을

동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이것도 예전만 못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또 전도하면 반드시 영혼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R.A.토레이 목사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나 해외 선교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어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순수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학교 부흥은 힘들고 어려운 어른 전도현장의 돌파구입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 아니라 어른들을 전도하기 위한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 성탄절 전야 교회학교 발표회가 진행되는 날이면 일 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한 명에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총 출동을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은 온통 아이들에게 집중됩니다. 자녀나 손주, 손녀가 나와서 공연을 할 때면 너나할 것 없이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대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 따라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오늘날에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적응을 잘하고, 또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들을 전도하는 좋은 통로가 되겠구나 하는 것 이었습니다.

성곡교회의 위치는 농촌입니다.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없습니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끌고 들어와야 교회학교가 되고, 도시에 가서 전도해야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도우시면 불가능은 없

다는 일념으로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회학교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학교의 부흥을 꿈꿨습니다. 또 이를 통해 어른들을 전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결실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 3. 교회학교 부흥은 교사를 통해서

교회학교 부흥을 말할 때,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교회학교가 부흥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린 아이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시대와 대상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해야 하고, 수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이 은혜받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부흥은 프로그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은 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이 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며, 헌신할 때 교회학교가 부흥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잘 세우고, 훈련시키고,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목회자의 관심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교회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성도들이 공감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학교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열정이 우선입니다.

둘째, 교회학교 교사들의 열정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을 내지만, 절반 정도는 의무감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하기에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교사 교육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선교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행1:8)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도 당부(행1:4-5)하십니다. 그만큼 전도와 선교는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사역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다짐과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주시고 힘을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제다가 교회학교 사역은 교회안에서 땅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행1:6)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땅 끝까지 있었습니다. (행1:8)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 끝에 관심을 갖고,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땅 끝은 바로 교회학교 사역입니다. 제일 힘이 드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물질로 헌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기쁨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회와 세미나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인들의 관심과 격려입니다. 교사들도 사람인자라 격려받고 지원아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에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교회 중직자들과 모든 교인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4. 몇 가지 방법에 대한 힌트

첫째, 아이들을 향한 담임목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6:22-27) 그래서 필자는 어른들을 위한 예배가 끝나자마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서둘러 갑니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줍니다. 또 학생부 아이들과는 손뼉을 마주치며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 뿐 아니라 교회 어른들에게도 교회학교 사역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담임목사 쿠폰, 부목사 쿠폰, 부장 쿠폰을 사용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이름과 사는 지역을 묻고, 예쁘다거나 멋지다는 등의 칭찬을 해주며 쿠폰을 나누어 줍니다. 쿠폰은 교회가 위치한 동네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교인인 가게 주인과 협약을 맺고, 아이들이 쿠폰을 사용하면, 그 쿠폰을 수거하여 교회나 담임목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아이들을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럴듯한 교사 명찰을 만들어 줍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스타일로 교사들 명찰을 만들어줍니다. 꼭 목에 걸고 사역을 하게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학교 교사임을 일반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광고시간이나 설교시간을 통해서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전 교인에게 교회학

교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인사를 하게끔 합니다. 교사들에게 아주 좋은 지지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터 전도입니다. 예전에는 교문 앞 전도가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하교시간이 되면 교문 앞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러 가지 소품과 선물을 가지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문 앞 전도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학교 당국과 부모님들이 교문 앞 전도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학원차량에 신속하게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교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아이들에게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수월하게 전도를 할 수 있고, 교회로 인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한 아이들의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락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여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때 부모님들에게 거절당하거나 욕설을 들을 수 있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전도는 매우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새신자 정착 사역

홍준기 목사 | 신창제일교회 담임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든 스스로 찾아오든 새신자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새신자들을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성장과 성숙을 돋는 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 1. 새신자는 누구인가?

### 1) 하나님이 보내 주신 영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 6:44).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고, 풀 한 포기 나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교회에 온 새신자는 스스

로 왔든지 누구의 인도로 왔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임을 알아야 합니다.

## 2)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 16:26).

우리 주님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찾아온 새신자를 90% 정도만 정착시켜도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을 하며, 한 영혼이 정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도 없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 양 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 찾아 해매다 다시 찾았을 때 잔치를 베푸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 집나간 자식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10명 중에 9명만이라도”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새신자를 보내 주시면 당연히 10명 모두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 3) 한 몸의 지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 안에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 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고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

백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34-35절 새 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은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새신자를 내 몸의 지체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 4) 영적 어린아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전 3:1~2).

새신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어머니의 젖인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인 새신자에게도 교육이나 훈련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발달심리학>에서 영아기의 특징을 ”신뢰 대 불신”(trust vs mistrust)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영아가 부모의 뜨거운 사랑 속에 자랄 때 세상을 향한 신뢰를 가지지만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라면 세상을 향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인 새신자도 그와 같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등록한 후 교회와 성도들의 집중된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한 교회의 성도들이 형식적이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때 새신자는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 5) 영적 유모가 필요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살전 2:7~8).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영적 어린아이인 새신자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영적인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한 영적인 유모와 같은 사역자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 6)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고, 육체적이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신자를 돌보는 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 때 새신자가 정착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 2 새신자 정착 사역의 실제

존 테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책에서 새신자가 영적 유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신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접촉이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한국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훈 목사도 이런 제도를 ‘양친제도’라고 하면서, 이미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개인적 접촉을 실시해 오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적 새신자 정착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 1) 정착의 단계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훈련된 사역자의 개인적이고 집중적인 사랑의 돌봄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 새신자 정착 사역의 목표가 개인과의 사귐에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정착 사역의 목표와 방향은 소그룹인 속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속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철저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안정되게 정착할 때까지를 사역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 정착 사역을 하는 교회 중에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착 사역을 일대 일 사역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 사역자 훈련

개인적 정착 사역은 교역자가 하는 것보다 평신도가 같은 눈높이에서 감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게리 메킨토시는 그의 책 〈새신자 동화〉에서 새신자가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에 우선하는 것이 “우정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새신자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사역자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 새신자 사역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 둘째, 속회 식구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
- 셋째,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 넷째, 새신자 정착 사역에 필요성을 느끼고 헌신할 각오가 있는 사람

## 3) 개인적 새신자 정착사역의 효과적인 방법

교회를 처음 찾아온 새신자를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며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래의 방법들을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① 준비

등록하기 전 교회를 방문한 새신자로 하여금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방문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안내위원을 주차 관리, 현관 안내, 예배당 안내의 차별화, 요계벳(예배시간에 유아를 데려온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도우미를 준비시키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 ② 등록

방문자를 첫 주에 붙잡지 못하면 75%는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록한 새신자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배시에 등록한 새신자를 환영할 때 전 교인의 대대적인 환영이 필요하고 예배당 안에 새신자를 환영하는 영접 위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 ③ 환영

새신자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 후 축도를 마치고 바로 예배당 안에 있는 영접 위원은 새신자를 새신자 환영실로 인도합니다. 새신자가 환영실로 안내되자마자 준비되고 잘 짜여진 순서로 새신자 환영순서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서 새신자부를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영접 위원, 간식 담당, 사진 담당, 새신자부 부장, 등록부, 서신발송부 등의 팀원들이 협력하여 새신자를 환영합니다.

## ④ 소개

새신자부의 환영 시간에 일대일로 새신자에게 새신자 사역자를 짹지어 줍니다. 새신자와 사역자 간의 연결이 잘 되도록 교회는 주일 예배 후 20분 안에는 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회의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나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교회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신자와 사역자 간의 연결은 빼를수록 좋습니다.)

## ⑤ 교재 사용

새신자와 사역자는 사귐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록 유도합니다. 이 사귐은 사역자와의 사귐이 아니라 교회와 연결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신자와 사역자와의 만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간단한 교재입니다.

## ⑥ 만남

교회를 처음 찾은 새신자가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간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3주, 5주, 7주로 정하는데, 5주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 ⑦ 일주일 간의 사역

**새신자를 찾아갑니다.** 주일 외에 새신자와 일주일에 한 번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귐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는 사역자가 간단한 식사나 차를 준비해놓고 초대해 사귐을 갖습니다. 둘째 주는 사역자가 새신자를 위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새신자 집을 방문합니다. 한 주일에 만남은 사귐을 가지기 위함이지만 교재를 함께 읽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새신자에게 교재가 필요 없이 사귐이 잘 될 수 있다면 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에는 안부전화를 합니다.** 한 주간에 한 번 만남을 가지고 토요일은 안부전화와 함께 주일 예배 약속을 권합니다. 이는 주일예배를 독려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주일에 교회를 찾는 새신자로 하여금 교회에 가면 아는 사람이 있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에는 기다려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새신자가 교회를 찾아오는 마음은 일 년에 새벽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집사가 새벽기도 가려고 마음먹는 것처럼 큰 마음을 먹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새신자가 아는 사람 없는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쑥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새신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배를 돋습니다.** 새신자는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특히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친구 같은 사역자 한 사람이 같이 앉아 예배를 돋는다면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소개해줍니다. 미국의 교회성장연구소의 윈안 박사는 “한 사람을 공동체에 적응하게 하려면 6명 이상의 친구를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사역자는 새신자에게 교우들을 소개합니다. 이 때 사역자가 명심해야 할 일은 주일에 새신자에게 소개할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를 소개할 때는 새신자와 또래의 사람들, 새신자가 들어갈 속회 식구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개인적 사역의 목표는 사역자와의 사귐이 아니고 속회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새신자를 위한 사역자의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 ⑧ 보고서

개인적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역자의 개인 사역보고서입니다. 개인보고서의 내용은 만남에 대한 내용과 새신자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인적 사역보고서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역자의 사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는 교회의 관리자가 최종 관리자에게 사역자들이 사역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 ⑨ 환영식

새신자가 교회를 찾았을 때 세 번 정도의 환영식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등록하는 날 새신자부를 통해서, 두 번째는 개인적 사역이 끝나면 전 교인 앞에서, 그리고 분기별로 새신자 환영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개인적 사역과 속회 연결

개인적 사역의 목표는 속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새신자 사역에 있어서 새신자와 사역자와의 사귐이 목표가 될 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철저하게 새신자와의 사귐을 속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캔터키 침례교회의 칩밀러는 새신자가 교회에 머무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앙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 내의 소그룹에 소속되었다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즉 우리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새신자가 속회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신자와 사역자와의 만남이 정한 시간에 끝이 나면 바로 속회에 연결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새신자와 사역자간의 사역이 끝이 난 환영식 직후 속회에서 환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신자를 인도한 사역자가 속회에 같이 있을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역자는 개인적 사역을 하는 동안에 속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역은 뜨거운 사랑과 관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속회에 새신자가 들어간 이후에 속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새신자의 정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교회는 감리교회의 속회다운 속회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4. 양육

속회에 정착한 새신자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될 수 있으면 빨리 양육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한 정착에서 양육을 통한

확신의 정착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초청되어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할 확률이 15%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의 정착한 새신자가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면 1년 내에 탈락할 확률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확실하고 안정된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고 속회는 새신자가 양육을 받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새신자의 양육은 새신자가 교회의 소속감을 더욱 가지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5. 기타

개인적 새신자 정착은 교회와 새신자부 그리고 교역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신자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철저한 또 다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6. 사역자 훈련과 재교육

### 1) 사역자 훈련

사역자 훈련은 준비된 사역자 훈련교제를 중심으로 1년에 두 차례 (5월, 10월) 4일간 집중교육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역자 훈련 후에는 속회별, 연령별 조직표를 두고 활용하도록 합니다. 특히, 새신자부를 조직적으로 두어서 목회자와의 연계 속에 운영되게 해야 합니다.

### 2) 재교육

재교육은 대개 분기별로 비전 - 협의 - 기술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평

신도 사역자들이 사역의 비전을 갖게 하고, 서로 사역을 나누며 협의하게 하고, 기술을 가지게 하여 사역지로 나가게 합니다.

교회를 처음 찾은 새신자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역자를 양성하고 개발하고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새신자는 교회라는 환경에 처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나 목회자를 통한 접촉보다는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평신도가 적합합니다. 사역자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새신자는 서서히 교회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 2017년 전도왕 노하우

### 1. 전도는 축제다

서울연회 노원지방 상계교회 김준범 장로, 88명 전도

### 2. 난곡동 통장의 전도 이야기

서울남연회 관악서지방 신림교회 이유종 권사, 82명 전도

### 3.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진 요양보호사

남부연회 대전서북지방 하늘문교회 전기자 권사, 36명 전도

# 전도는 축제다

김준범 장로 | 서울연회 노원지방 상계교회

나는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4년에 있었던 전도 잔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나 자신도 전도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했었고, 전도를 통한 결실을 체험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서길원 담임목사님께서 부임하신 후 첫 전도 잔치를 통해 상계교회는 전도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일 출석인원은 4~500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전도 잔치에 무려 '1,000명 초청'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이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는데 전도 잔치 마지막 날 1,000명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상계교회에 전도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도가 부담이고 전도 잔치가 연례행사로 여겨지는 분위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그동안 깨달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 자신만의 전도 원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도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전

도목표를 조금은 무리하다 생각될 정도로 높게 설정합니다.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게 되니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요즘은 노방전도 때도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전도방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말에 산책하는 주민들은 강아지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커피전도와 함께 강아지 간식거리를 전도용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 **둘째, 나만의 차별적 전도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 있는 나로서는 집 근처 개별 전도를 통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접근법을 택했는데 그것은 아내와 함께 학부형 전도, 가정전도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 결과 이제는 하나 둘씩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신뢰를 쌓아 전도축제 때 초청하기를 거듭하니 이것이 뿌리가 되어 가정이 전도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정전도는 한번에 3~4명이 전도되는 더 큰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 **셋째, 함께 목표를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혼자는 힘들어도 함께 하면 즐겁고 강인해 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교구장으로서 우리 교구 지도자들과 전도대원들이 함께 목표를 향해 매진할 때 더욱 힘이 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꼭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충만해집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훌륭한 전도 사례들을 공유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의 분

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역할도 소그룹 모임을 활용하면 효과 만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결실을 맺을 때마다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전도대상자의 수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참여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목표를 가지고 뛸 때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전도축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나는 그 동안 열심히 전도하였으며 그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13년 37명, 2014년 31명, 2016년 61명을 전도하여 서울연회에서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88명을 전도하여 남선교회 서울연회연합회에서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금년 봄 담임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을 심방하셔서 늘 그려셨듯이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때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리고 늘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전도가 나의 사명으로 알고 전도축제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 난곡동 통장의 전도 이야기

이유종 권사 | 서울남연회 관악서지방 신림교회

### 전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

나는 중동에서 13년을 근무하였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주님을 모르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우울증, 의처증, 불면증, 불안증, 공포증, 신경쇠약증 등 6가지의 병이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완전히 종합 질병 세트였습니다.

그렇게 병에 시달리며 1년간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차도는 없었고 오히려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과장님과 상담을 하던 중에 신앙생활이 치료에 좋을 수 있다고 하시며 권유하셨고, 그렇게 나는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병세는 호전되었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6가지의 병을 완전히 치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동으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온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술과 도박으로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빈번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이들도 꽤 여럿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며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들 중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던 강퍅한 사람들도 여러 번 찾아가서 따듯하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내가 전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참으로 부족하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작은 일어든 큰일이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일단 시작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된다

여러 해를 전도에 힘쓰다 보니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들어보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림동에 살게 된 지도 어느덧 4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 정문 앞에서 구명가게를 하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불심이 아주 깊어서 사람들은 이 분을 ‘보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고 하나 있던 아들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

다. 이 할머니는 본의 아니게 일찍이 ‘독거노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할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시골에서 가져온 고구마나 감자를 들고 찾아뵙기도 하고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며 안부를 묻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전 장마로 비가 한참 내리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여러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경찰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문들을 하나하나 열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시골에 내려가셨나 보다”하며 집 밖을 나가려던 차에 갑자기 화장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그곳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할머니의 팔이 꿈틀했습니다. 나는 급히 119구급차를 불렀으며 함께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대화를 나누기에는 어렵다고 하여 며칠 되에 다시 또 찾아갔습니다.

거동할 수 없는 할머니는 얼굴로나마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나는 할머니 옆으로 가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죽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하고 아멘을 했는데, 이 할머니도 ‘아멘’

을 따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할머니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고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빼내 버리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재빨리 가지고 다니던 ‘영접기도문’을 꺼내서 할머니가 따라 읽게끔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멘을 아주 잘 따라했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자살하여 죽으려고 했었고 세상을 비판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낸 것입니다.

### 전도하고 나서 변화된 점(축복과 협통)

나는 전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 첫째,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나는 참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를 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와 만나도 어렵지 않게 대화를 합니다.

#### 둘째, 가정의 축복

우리 집에는 목사후보생 1명과 목사가 1명 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일찌감치 그만두고 잘 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신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나의 아내는 목회자입니다. 개척을 통해 실패도 맛보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고집스러운 안동 김씨 가문의 맏딸이

예수를 믿어 목사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집에는 한쪽 벽면에 대문짝만한 비전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신림동 기도의 용사여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 가족은 기도의 용사 300명을 통하여 신림동을 변화시키자는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7,000명의 영혼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 주님께 사랑의 빛을 전 요양보호사

전기자 권사 | 남부연회 대전서북지방 하늘문교회

나는 꿈 많고 아름답던 20대 나이에 결핵으로 공주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병원에 있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서 갔는데 그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커다란 두 팔로 나의 온몸을 감싸 안아주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살고 싶어서 그 분께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은 생애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도할 대상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가 내일을 행하면 나는 네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 동안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평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믿음이 없으신 어머니께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날마다 눈물로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으며 기도를 응답하셔서 결국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셨고 내가 전도 왕이 되게 해 달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치매와 허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노인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집집마다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치매, 뇌졸중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드렸습니다. 비록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었지만 나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찬양을 가르쳐 주었으며, 마지막에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깐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들이 너무 신이 났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섬김으로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그립고 외로워서 빨리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더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면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시며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주위 어르신들이 보시고 자기들도 교회에 와도 되냐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함께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망설였는데 어느 날 전도지를 받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새벽예배부터 드려야 한다며 교회에 나가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운동하러 나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

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그분께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밤에 어디로 가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곳은 술집이었는데 한 남자가 괴로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였으며 사랑의 예수님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슬픈 얼굴을 하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 말을 듣고 죽기 전에 교회에 한 번은 꼭 나가보겠다며 약속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권사로써 많은 헌신을 하는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밖에 나는 전도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우리 교회 교인들과 많이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물건 많이 사 주면 좋아하고, 또 식당가서 매상 올려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전도이고 또 새로운 전도 방법도 아니지만 나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늘 빛 진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일꾼 훈련을 위한  
**웨슬리 전도 가이드북**

발행인 박영근

편집인 서의영 이효충

집 필 조재진 이영태 이상일 이현식 오숙녀 손철산  
박정희 유재구 이상주 강득환 홍준기

발행일 2017년 12월 28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www.kmcmission.or.kr](http://www.kmcmission.or.kr)

비매품